업무 언어로서의 영어: 제네바, 홍콩, 두바이와의 비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제네바: 영어권 산업 속의 프랑스어권 중심지

제네바와 싱가포르는 언어 문제를 정반대 방향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네바는 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나라 안의 프랑스어권 도시로서, 세계 공용어가 영어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에 따르면 프랑스어는 여전히 칸톤(주) 인구 79%의 주된 언어이며, 인구 12%의 주된 언어인 영어는 금융중심지의 제2 업무 언어가 되었습니다.[1] 칸톤 헌법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2] 연방 법률은 세 가지 정본 언어판으로 존재하며, 감독기관의 회람과 법원의 판결은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발표됩니다.

그럼에도 스위스 법에서 영어는 세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스위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칸톤은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절차에서 영어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연방대법원은 국제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영어로 작성된 서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3] 이로써 스위스는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다. 다만 그 움직임은 부분적입니다. 영어로 심리하는 스위스 법원도 여전히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개념이 형성된 스위스 채무법을 적용하는 반면, 싱가포르 법원은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며 영어로 구상된 법을 적용합니다.

이 비교는 제네바 고유의 자산도 보여 줍니다. 프랑스어는 제네바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퀘벡, 마그레브,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고객과 이어 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사안을 논의하고 문서에 서명하기를 선호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영어로 이에 상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어는 싱가포르를 모든 사람과 이어 주지만, 특별히 누구와도 이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네바의 프랑스어에 대응하는 싱가포르의 자산은 중국어(만다린), 말레이어, 타밀어에 있으며, 이 언어들은 싱가포르를 중국, 말레이 세계, 남인도와 연결합니다. 제J편 제II장에서 이 두 번째 층위를 살펴봅니다.

홍콩: 두 개의 공용어와 중국어의 흡인력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홍콩입니다. 홍콩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식민 행정과 보통법의 언어로서 영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달리 홍콩은 인구 대다수의 모어가 광둥어이고, 주권국의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1974년 공용어조례(Official Languages Ordinance)는 중국어와 영어를 동등한 지위의 공용어로 정했지만, 1995년 개정 전까지 법원 절차에서 중국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4] 1997년부터 기본법은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중국어 외에 영어도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이 표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홍콩에서 영어는 중국어와 함께 허용되는 추가 언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영어는 헌법이 아무런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에도 모든 기관의 업무 언어입니다. 홍콩의 금융 부문은 여전히 영어로 일하지만, 법원은 점점 더 많은 사건을 중국어로 심리하고, 입법회는 주로 광둥어로 토론하며, 본토와의 연결은 만다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과 거래하려는 고객에게는 홍콩의 이중언어 체제가 장점입니다. 모든 것이 영어로 운영되는 아시아 중심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싱가포르가 더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두바이: 아랍어 법질서 속의 영어 섬

두바이는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는 2004년 두바이법 제12호에 따라 자체 법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일반 법질서가 대륙법 체계이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국가 안에 있는 독립적인 영어 보통법 사법기관입니다. 2011년 두바이법 제16호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모든 국내외 사건에 DIFC 법원을 개방했습니다.[6] 이 모델은 금융 산업이 영어로 된 법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보여 줍니다.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냅니다. 금융자유구역 밖에서 두바이의 법과 법원은 여전히 아랍어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모든 거래와 모든 법원에 대해 영토 전체에 걸쳐 동일한 영어 법을 제공합니다.

금융중심지 순위

2026년 9월 발표된 제40판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에서 뉴욕이 1위를 차지했고, 런던, 홍콩,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으며, 두바이는 9위, 취리히는 10위, 제네바는 12위였습니다.[7] 상하이, 도쿄, 서울, 선전이 5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순위는 영어가 최상위권에 오르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국제 민간 자산과 국경 간 비즈니스를 놓고 경쟁하는 중심지들 사이에서 영어로 된 법과 규제는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공통 인프라의 일부를 이룹니다. 제K편 제III장에서 이들 중심지 간의 경쟁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숫자로 보기

5세 이상 거주자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서의 영어: 1990년 18.8%, 2000년 23.0%, 2010년 32.3%, 2020년 48.3%, 2025년 58.1%. 만다린: 2010년 35.6%, 2025년 26.6%. 중국어 방언: 2025년 4.9%. 영어 매체 학교 재학생 비율: 1960년대 초 약 50%, 1970년대 말 약 90%. 1978년 고 보고서(Goh Report)에 따른 두 언어 최소 능력 보유 학생: 40% 미만. 싱가포르 프리스쿨(Singapore Free School) 개교: 1834년 8월 1일, 남학생 46명. 퀸스 장학금(Queen's Scholarship) 창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설: 1885년. 영어가 학교 체계의 제1언어로 지정: 1987년. 바른 영어 쓰기 운동(Speak Good English Movement) 출범: 2000년 4월 29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된 싱글리시 단어: 2016년 19개, 2026년 11개 추가. 헌법 제153A조에 따른 공용어: 4개, 국어는 말레이어.[8]

주

1.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제J편 제III장 참조. 이 장은 *Tribune de Genève*, 2026년 4월 23일 및 *20 minutes*, 2024년 7월 23일(OCSTAT 자료)을 인용하고 있음. ↩
2. 2012년 10월 14일 제네바 공화국 및 칸톤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and Canton of Geneva) 제5조 제1항.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 제J편 제III장에서 인용. ↩
3.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 b호 및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대법원법 제77조 제2bis항.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 제J편 제I장, "L'anglais devant les juges suisses" 절에 기술된 바에 따름. ↩
4. Wikipedia, "Official Languages Ordinance"(2026년 11월 최종 접속): 1974년 1월 11일 도입되어 1974년 2월 15일부터 시행; 중국어와 영어가 "declared official languages with equal status"; "Chinese could not be used procedurally in the courts until an amendment was made in 1995". ↩
5.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제9조("In addition to the Chinese language, English may also be used as an official language by the executive authorities, legislature and judiciary") 및 보통법 유지에 관한 제8조, basiclaw.gov.hk(2026년 11월 최종 접속). ↩
6. Wikipedia, "DIFC Courts"(2026년 11월 최종 접속): DIFC 사법당국은 2004년 "Dubai Law No.12"에 의해 설립되었고, 법원은 2006년 업무를 개시; "independent English language common law judiciary"; 2011년 10월 31일 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명된 2011년 두바이법 제(16)호는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allowed the DIFC Courts to hear any local or international cases". ↩

7. Wikipedia,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2026년 11월 최종 접속): GFCI 40, 2026년 9월: 뉴욕 1위(761), 런던 2위(757), 홍콩 3위(756), 싱가포르 4위(755), 상하이 5위, 도쿄 6위, 서울 7위, 선전 8위, 두바이 9위(750), 취리히 10위(749), 제네바 12위(747); 2026년 9월 16일 발표. ↩

8. 위 각주에 인용된 출처: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 "Language policy in Singapore", "Education in Singapore", "Raffles Institution", "Queen's Scholarship", "Speak Good English Movement" 및 "Singlish"(모두 2026년 11월 최종 접속);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제153A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